



# 교섭속보

## 13호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송은옥

### 산별총파업 D-2

## 고대의료원, 진정한 의료현장을 되찾기 위해. 파업에 나서자!

고대의료원 노동자인 우리들은 의료원 운영의 일주체이며,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환자를 치유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우리는 돈벌이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며, 경영상의 비용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긍지를 가지고 일할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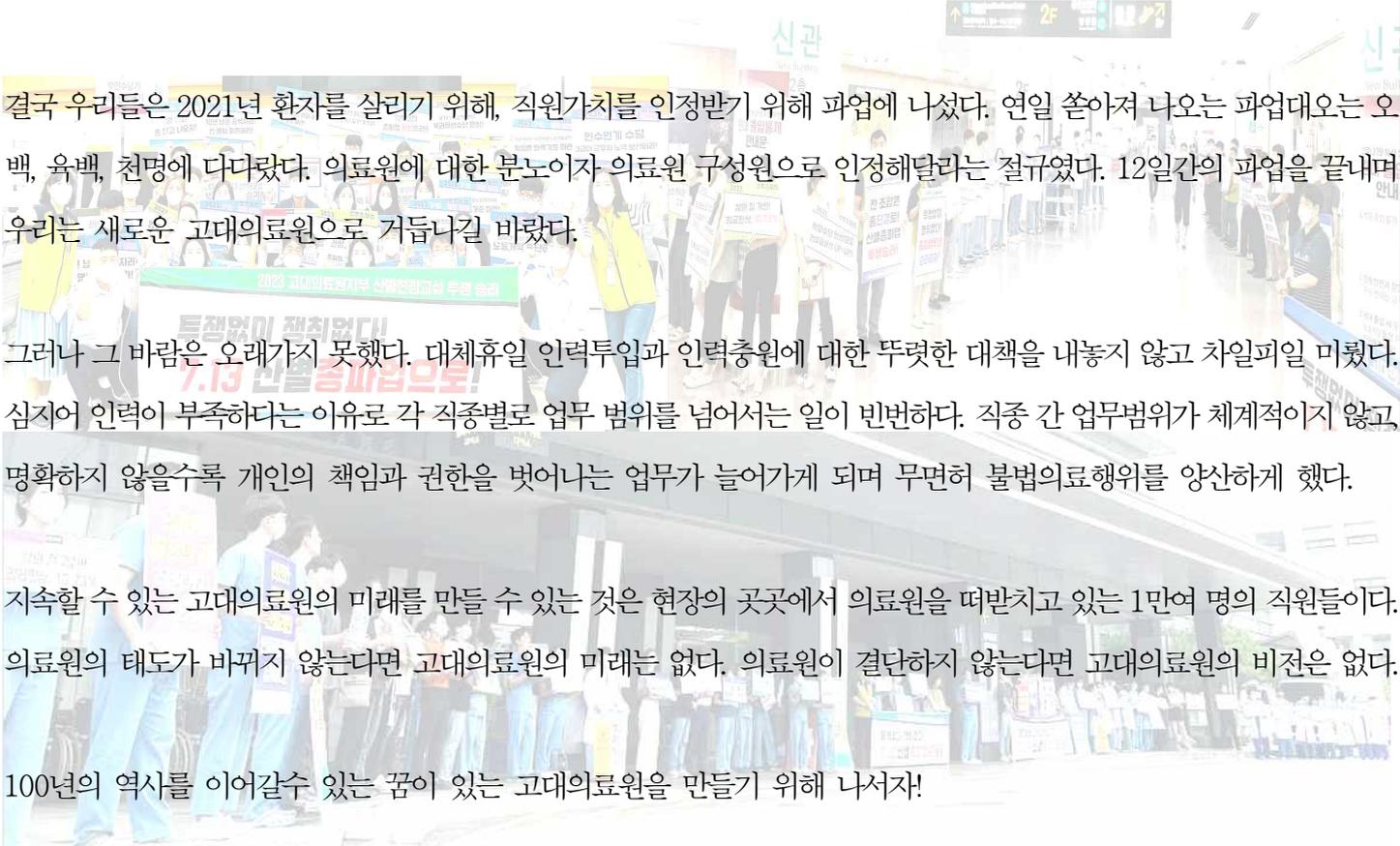
그러나 의료원은 우리들을 비용으로 취급하고 돈벌이로써의 희생과 노동만을 강요해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긍지마저 꺾고 있다. 결국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부서질 대로 부서진 몸과 마음뿐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심각해진 노동 강도뿐이다.

결국 우리들은 2021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직원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파업대오는 오백, 육백, 천명에 다다랐다. 의료원에 대한 분노이자 의료원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절규였다. 12일간의 파업을 끝내며 우리는 새로운 고대의료원으로 거듭나길 바랐다.

그러나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체휴일 인력투입과 인력충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심지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직종별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빈번하다. 직종 간 업무범위가 체계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을수록 개인의 책임과 권한을 벗어나는 업무가 늘어가게 되며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게 했다.

지속할 수 있는 고대의료원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장의 곳곳에서 의료원을 떠받치고 있는 1만여 명의 직원들이다. 의료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고대의료원의 미래는 없다. 의료원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고대의료원의 비전은 없다.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수 있는 꿈이 있는 고대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나서자!



# 우리의 파업은 약속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 승리는 7월 산별총파업, 함께 만듭시다.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공익적자 해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모두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간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상향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 ▲직종 간 업무범위 명확화 모두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시행해야 합니다.

▲간병비 해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 앞에 한 공약은 지켜야 합니다.



**7월 12일 파업 전0제 참가 지침**  
**장소 : 각 병원 로비**  
**집결 시간 : 오후 5시 50분**